

#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

( 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012
----------	------

발의년월일 : 2017. 6. 19.

발 의 자 : 정승현 의원 외 13인

## ☐ 주 문

- 붙임 “결의안” 과 같음.

## ☐ 제안이유

- 우리시에는 선부동과 양상동에 예비군훈련장이 운영되고 있고, 양상동 훈련장에서는 타 지역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계획은 안양·의왕지역 주민의 훈련장 이전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간계로써 안산시를 무시한 행위이자 극명한 지역 차별 정책임.
- 특히, 양상동 훈련장은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곳으로, 통합 예비군 훈련장으로 운영될 경우 교통 혼잡 가중,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명백백하므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타 지역의 예비군자원은 거주 지역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촉구.
- 안산시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

☐ 송부대상 : 청와대, 국회, 국방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 결의문(안) : 별첨

##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

현재 우리시에는 선부동과 양상동에 예비군훈련장이 운영되고 있고, 선부동 훈련장과 달리 양상동 훈련장에서는 타 지역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시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굳건한 국토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비 지원과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는 등 군·관 상생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시가 향토방위태세 확립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의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계획은 안양·의왕지역 주민의 훈련장 이전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간계로써, 안산시를 무시한 행위이자 지역 간 형평성을 훼손함은 물론, 극명한 지역 차별 등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안양시와 의왕시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우리시의 선부동 및 양상동 훈련장으로 통합하여 안양, 의왕, 과천 등 7개 시 1개 면의 예비군들을 훈련 할 경우 예비군 훈련 인원이 7만 9천여 명에서 13만 8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부정적 견해는 물론, 국방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팽배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양상동 훈련장은 안산IC와 인접하여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곳이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 타 지역의 예비군들이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문제, 훈련장 주변 개발제한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부평 통합예비군훈련장 이전 철회』 기사를 보고, 우리시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결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통합 예비군훈련장을 강행할 경우에는 상상 이상의 극렬한 대규모 집단행동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자명하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타 지역의 예비군자원은 거주 지역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안산시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 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전투임무 수행 능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수년간 예비군훈련장 운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는커녕 타 지역의 민원을 전가시키는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교통 혼잡 등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개인화기 사격 등으로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안산시 양상동 예비군훈련장을 즉각 폐쇄하라.

2017년 6월 30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